

美國 北長老會 淸州宣敎部 建築의 形成과 特性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racter of Cheong Ju Presbyterian Missionary Architecture from 1900 to 1945

도 선 봉* 한 규 영**
Dho, SunBoong Han, KyuYoung

Abstract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architecture in Cheong Ju area from 1900 to 1945, which we may think 'the part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I have examined and analyzed the 18 buildings for the sake of the interpretation with the words of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And I can put my idea in order as follows. Firstly, the formation process is 1) buy and modify a Korean style (thatch or tile roofed) building for their need and use it as a gate quaters or house, church, hospital, school, book store, 2) build a Korean style (tile roofed) building and use it-house, hospital, school, 3) build a Western style (timber structured and zinc roofed) building and use it- church, 4) build a Western style (masonry structured and tile or zinc roofed) building and use it-house, church, school and hospital.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is 1) In the Korean style building, · the missionaries change into the function to match with their purpose. · they modify the Korean style timber structure by influx of building material-brick, glass, carpet etc. . · they occupy into the Korean existing residential area. 2) In the Western style building, · the missionaries build the house correspond with their living pattern. · they build the church with the eclectic of Western and Korean timber frame. · and also build the house and hospital with the eclectic of Western and Korean masonry structure. · their building located in the isolate hill separated from the existing Korean residential area.

키워드: 청주,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건축(주택, 교회, 학교, 병원), 형성과정, 건축특성
Keyword: Cheong Ju,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architecture (house, church, school, hospital), Formation proces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1. 序論

한국 근대건축 형성과정에 있어 서양건축은 여러 경로로 유입되었고 그들 중 미국 선교사들을 통한 건축활동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¹⁾ 서울

*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2000년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연구의일부분임(과제번호:2000-1-31000-001-2)

1) 윤일주, 한국 양식건축 80년사, 야정문화사, 1965, 14쪽; 윤일주, 한국 근대건축사 연구(1910년 이전의

이나 개항장에서 시작한 이러한 유입은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내륙지역까지 파급되었다. 청주도 그 중 하나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선교에 필요한 건축을 하였고 그 건물들이 현재도 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다. 선교부 건축 중 건물 하나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²⁾과 여러 근대 주거시설들의 한 부분에 놓고 살펴본 것³⁾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건물 하나의

부산의 양풍건축), 1987, 16쪽; 발인편집부, 우리건축을 찾아서 2, 도서출판발언, 1993, 186쪽 참조
2) 원세용, 청주양관1호연구, 청주대석사논문, 1993. 8

특성을 조사 연구한 것과 여러 근대주택들의 부분에 놓고 살펴 본 것들이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건축한 전체를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주택 외에 병원, 학교, 교회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진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주 선교부 건축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기능별로 분류하여 건축과정과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청주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900년부터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 당한 1941년까지를 살피고자하나 해방(1945년)까지를 편의상 서술의 범위로 잡았다. 공간적 범위는 선교사들이 청주를 거점으로 형성한 건축물에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의 기본 가닥을 잡고 현존하는 건축은 실측하고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

2. 美國 北長老會 淸州宣敎部 形成過程

2.1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 형성배경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영호 남지방에서 서울로 왕래하는 세 갈래 길이 있었고 외국 선교사들도 이 길들을 선교통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⁴⁾ 미국 북장로회 서울선교부는 지방선교의 길이 열리자 1894년 윈두우(H. G. Underwood)선교사는 한국인을 조사로 임명하여 우선 서울 인근 경기지역 선교를 시작했다. 그 중 김홍경이 용인, 양지, 죽산 등 경기 동남부지역을 담당하였다. 초기 미국 북장로회 선교구역(circuit)은 경기지역을 넘지 않았다. 그것은 1893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전라도와 충청도를 선교구역으로 설정하는데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장로회는 재정과 인력확보가 어려워 전라도에 한정된 선교를 하므로 충청도는 공백지로 남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감리회와 북장로회는 충청도 선교확장을 위해 여러 차례 지역탐방을 하였고 그 결과 공주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전체와 충청북도 충주는 미국 감리회가, 청주는 미국 북장로회가 맡기로 협정하였다.

서울에서 지역선교를 준비하던 민노아(F. S. Miller)선교사와 김홍경 조사는 1900년부터 청주를 방문하고 순회전도와 시장전도를 하였다.⁵⁾ 당시 이 지역엔 청주 신대리(1901년), 노계(1901년), 보은 도원리(1902년), 노터(1902년), 범주리(1902년), 괴산 송림리(1902년), 괴산읍교회(1903년) 등이 한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부의 움직임은 당연하여 1901년 청주읍 남문 밖 초가집을 선교부 객관으로 구입하고 1902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mission board)에 선교부 설치를 청원하였다. 1904년 객관에서 청주읍교회를 설립하여 선교부 설치의 기틀이 마련되자 1905년 독립 선교부 설치허가를 얻고 민노아와 김홍경은 청주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수행하였다.⁶⁾ 이 때 청주선교부 설치를 허락한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는 선교자금을 즉각 지원할 수 없었으므로 민노아는 우선 사재로 주택, 교회, 학교부지 등을 매입하였다. 1907년 계군(Edwin H. Kagin), 1908년 국유치(Welling T. Cook), 부반서(Walter C. Purviance)의사가 청주에 주재하면서

5) Clark, Allen D., History of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Seoul), 1971, p.303; 대한예수교장로회충북노회, 충북노회80년사, 1979, 70쪽
6) 충청도지역을 답사하고 1903년 청주선교부 설치에 대한 미국 선교부 연례회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새로운 선교지부는 청주에 설치할 것 (2)철도노선이 있는 조치원 시장에 서점과 숙박을 위한 집을 세울 것 (3)밀러 목사로 하여금 경기도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선교지부 개설의 책임을 맡게 할 것 (4)예비적인 지출을 위한 1500원이 필요함 (5)선교본부가 개인이나 교회로부터의 특별출연을 통하여 선교지부의 지원을 확보할 것 (6)Null 의사부부를 청주에 임명할 것 (7)새로운 목사선교사를 선교본부에 요청함 (8)모팻박사가 적어도 1개월간 밀러목사와 함께 지내면서 새 선교지부를 개설할 것 등이다. (Rhodes, Harry H., History of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1884-1934);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충북노회사료집, 1998, 45-47쪽 참조)

3) 김태영, 일제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7
4) 이덕주, 한국 기독교 문화유적을 찾아서-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1)-, 기독교사상, 1997. 9, 251쪽; 안재명, 충청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1999. 8, 21쪽 참조

안정적인 선교부 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었다.

2.2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 발전과정

이 후 선교사들의 활동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13년 부반서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1914년 계군은 청주를 떠나 미국에서 사임하였으며 1917년 국유치 마저 만주로 전근 갔다. 이들의 후임으로 1914년 지돈(Samuel P. Tipto)의사, 1921년 소열도(T. Stanley Soltau)선교사가 들어왔다. 또한 1923년 부레션(Jason G. Purdy)선교사가 부임하여 선교 중 장티부스에 걸려 1926년 사망하였다. 그 후임으로 한부선(Bruce F. Hunt) 선교사가 부임하여 선교하다 1931년 만주 선교부로 갔고, 노두의(Dewitt S. Lowe)의사가 의료 선교를 이었으며 조운선(Olga C. Johnson)선교사가 1936년 부임하여 1938년까지 성경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 무렵 청주선교 주역인 민노아는 1936년 정년퇴직 후 1937년 갑자기 청주에서 사망하였다.

이들 청주선교부 사업은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교육과 의료사업 등을 병행하였다.

먼저 교회의 설립과 운영은 1904년 민노아가 청주에 내려왔을 때에 이미 설립된 교회들은 7 곳이었다. 여기에 1904년 청주읍교회를 선교거점교회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순회하고 장날 모인 민중들에게 문서 전도한 결과 1914년 조직교회 1개, 미조직 교회 36개, 교회당이 있는 교회 34, 세례교인 544명, 교인총수 1423명으로 나타난다.⁷⁾ 1920년엔 조직교회 1개, 미조직 교회 44개, 교회당이 있는 교회 31개, 세례교인 582명, 교인총수 1782명, 1924년엔 70개 교회, 1940년엔 81개의 교회 등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둘째, 교육사업은 1904년에 이미 한국 기독교인에 의해 광남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을 민노아는 교사를 파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 관계를 하다가 1908년 직접 인수하여 청남학교로 구한국학부에서 인가를 받았다.⁸⁾ 당시 이 지역 기독교계 사립학교 6

개는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었다. 이들 학교들 중 청남학교와 청신여학교 만이 선교부에서 직접 운영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었다. 한편 청주 선교부에서는 교회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21년 청주성경학교를 설립하였다.

세째, 의료사업은 1907년에 널 의사(M. N. Null)가 3개월 동안 청주 선교부에서 일하였고 후임인 부반서 의사는 1908년 청주 선교부에 상주하면서 처음엔 민노아의 기와집에서 진료소를 열었고 1912년부터는 서양식 병원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911년에 2500명의 환자를, 1912년엔 4000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다음으로 지돈 의사는 1914년 청주에 왔으나 의사면허문제로 진료행위를 못하고 청주 선교를 보좌하다 1916년 1월에 가서야 의료선교사업을 재개하였다.⁹⁾ 1918년에 지돈 의사는 떠났고 1929년 노두의 의사가 오기 전까지는 청주선교부의 의료사업은 임시 고용된 한국인 김영철 의사와 미국인 예사탑 간호사에 의해 약국과 순회 진료를 운영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노두의 의사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되기까지 청주 선교부에서 일했다.¹⁰⁾

3. 美國 北長老會 淸州宣敎部 建築過程

3.1 주거의 건축과정

1901년 선교사들이 청주에 방문하면 기거할 객관(gate quaters)을 구입해 두고 청주에 순회전도를 올 때마다 묵었던 초가집을 1905년 민노아

7) 경기 충청노회 노회록 제 1회-26회, 1974, 73쪽;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83쪽; 한국기독교장로회, 위의 책 230쪽 참조

8)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연도별 청주제일교회 발자취, 1984, 17쪽; 전순동 최동준, 중원문화논총(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6, 95쪽 참조

9)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東京으로 의사면허 시험을 치기 위하여 여행을 한 끝에 딘톤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래서 병원은 1월에 다시 문을 열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위의 책 83쪽 참조)

10) Rhodes, Harry A. and Campbell, Archibald, History of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2(1935-1959), 1965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64쪽 참조)

가족과 김홍경은 임시주거로 삼아 약 3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1904년부터 선교기지(mission station)용 대지로 탑동 동산을 193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약 5만평을 매입하였다.¹¹⁾ 초기 선교부 대지 매입비는 750불인데 500불은 민노아의 친구가, 100불은 뉴욕에 사는 코핀(H. S. Coffine)여사가 그리고 포사이드 부부의 선교주택 건축비인 3000불 중 일부로 해결하였다. 선교부 대지가 확보되자 민노아는 1905년 기와집 2채를 건축하고 객관에서 이사하였다.¹²⁾ 1906년 포사이드의 현금으로 벽돌과 나무기둥의 복합구조에 한식기와지붕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이 포사이드 기념주택(충북유형문화재 제 133-4호)이 청주에 건축된 최초의 서양식 주택이다.



사진 1. 포사이드 기념주택(1906년)

기와와 벽돌은 대지 내에서 산출되는 점토를 구워 마련하였고 창문, 방문, 마루, 철물과 바닥에 깔재료들은 미국에서 수입하였다.¹³⁾ 건물의 기초부는 청주읍성 감옥을 해체하여 쌓았다.¹⁴⁾

11) Rhodes, Harry A.(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47쪽에 보면 이 대지에서 옛 절터가 발견되었고 기와와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질 좋은 점토가 있었다고 한다,
 12) 이 기와집 2채가 당시에 신축된 건물인지 기존의 건물을 개축한 것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13) The Letter of Esther Lucas Shields(1907.7.22), The Korean Mission Field,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91쪽 참조)
 14) 이 포사이드 기념주택을 지을 때 민노아 선교사는 현관의 계단돌을 당시 청주 진영장 감옥의 문인방을 사용하여 천주교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순교하는 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려고 했고, 주택 기초의 화강석들은 이 감옥의 벽을 해체한 후 나온

이 건축참여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민노아에 의해 설계 감독된 것으로 보이고 중국인 벽돌공과 한국인 목수 이동욱의 참여가 있었다. 민노아는 청주에서 순교한 가톨릭 신자들이 고통당하던 감옥의 인방재를 주택 현관의 디딤돌로 사용하였다. 이후 계군과 국유치 그리고 부반서 등이 청주선교부에 부임하므로 주택이 필요하여 1910-1911년 새로운 주택 1채를 건축하였다.



사진 2. 민노아 주택(1910-1911년)

이 때 성경학교 건물로 건축하던 맥클링 기념성경학교(충북유형문화재 제 133-5호)도 선교사들의 거주를 위해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사진 3. 맥클링 기념주택(1910-1911년)

이 두 건물의 기초엔 청주읍성 안에 있던 원형 감옥성벽의 석재를 불하받아 사용하였다.¹⁵⁾ 이들 민노아 주택, 맥클링 기념주택, 던컨 기념

석재로 쌓아서 청주 선교부 최초의 주택을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의 토대 위에 놓았다는 역사적 단초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15) 민노아 선교사의 편지(1925년), The Korea Mission Fields(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114쪽 참조)

병원이 동시에 건축되어 당시로서는 큰 공사가 되었다. 벽돌과 기와 제조를 위한 목재를 벌목하여 운반하는 데 4주 동안 벌목일은 매일 50-100명, 운반일은 매일 400여명이 등짐지기를 하였고 이들의 하루 임금은 15센트였다. 벽돌과 기와의 제조는 하도급을 주었다.¹⁶⁾ 건축에 참여한 인부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건축 감독은 민노아, 계군, 부반서 등으로 전문건축인은 아니었다.



사진 4. 소열도 주택(1921년경)

여기에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소열도 주택(충북유형문화재 제133-1호)이 있다. 이 주택이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건물의 위치와 형식 그리고 현관 포치와 창호 상세 등이 민노아 주택이나 매클링 기념주택과는 차이가 있어 다른 시기에 지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소열도가 초기부터 살았고 가장 오래 머문 것을 보면 소열도가 청주에 상주하기 시작한 1921년경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3.2 교회의 건축과정

청주읍교회는 1904년 청주읍성 남문 밖 선교사 객관인 초가집에서 설립되었다. 이 초가집은 교인들이 점차 많아지자 그 해에만 초기의 세배 크기로 확장되었다.¹⁷⁾ 1905년 현재의 교회터(남

문로 1가 154번지) 1500평을 구입하였다. 이것은 교회 설립자 중 한사람이 임종하면서 현금한 100원과 교인들의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는 구한국 청주진영장이므로 큰 규모의 기와집이 많아 개조하여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다. 1910년 이 건물은 500명 수용 가능한 크기로 확장되었다. 이 후 1913년 착공된 예배당(현 남문로 1가 157)은 1912년부터 시작된 청주읍교회 교인들의 현금과 신여사, 그리고 충북부지사의 기부금과 세브란스의 1/3의 비용부담으로 개량 목조 합석지붕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당시에 현금된 액수가 600불이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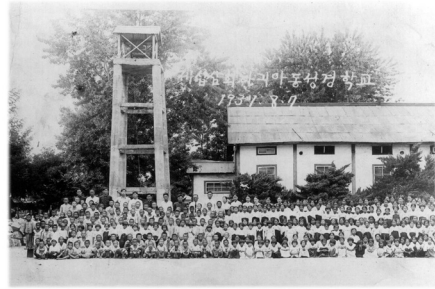


사진 5. 청주읍교회(1913년)

1939년 현재의 벽돌예배당(현 남문로 1가 154)을 착공하였다. 사실 이 예배당의 설계와 건축추진은 1937년 박상건 목사 재임 중으로 교인들의 현금 2만원과 청주 선교부 보조금 7천원을 합하여 석조 2층 예배당을 지으려고 계획한 것이었다.¹⁹⁾ 그러나 당시 청남학교와 대지문제

보인다.(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교회 100년사(1894-1994), 1995, 112쪽 참조; 도선봉 한규영, 미국 북장로회 안동선교부 건축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0. 6, 50쪽의 사진 1 참조)

16) Edwin Kagin의 편지, 한국선교전선 청주-건축 편에 대략 기록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하도급을 주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93쪽 참조)
17) 여기에서의 확장방법은 처마에 부연을 달아내어 지붕을 연결하는 방법과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임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주로 채택된 것으로

18) 이 돈의 액수는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겨우 15센트였던 것을 생각하면 계산상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제일교회, 위의 책, 20쪽 참조)
19) 석조 예배당의 구상은 당시 같은 내륙지역이면서 후발 선교부인 안동선교부 거점교회인 안동교회가 1937년에 석조 2층 예배당을 건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박상건목사는 석공과 계약하고 사서

때문에 1939년 구연직 목사 재임 시에 비로소 3만 3천원의 벽돌 예배당으로 착공한 것이다.²⁰⁾ 1940년 준공 시까지 4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고 일제 당국의 종탑 높이의 제한으로 9자 정도 낮게 시공되었다. 이 공사 시에는 일제와 미국 선교사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많은 박해와 방해를 받으면서 완공한 것이다.²¹⁾ 1949년 후면으로 3칸을 증축하고 1951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사진 6. 청주읍 교회(1939년, 1951년증축)

3.3 학교의 건축과정

청남학교는 1904년 광남학교라는 이름으로 방흥근의 주택을 교실 2개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1908년 청남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인근 보부상조합 소유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교실 4개를 확보하였다. 이 집은 선교부에서 200불, 청주읍교회에서 50불을 현금하여 구입하였다. 1923년 청주의 망선루²²⁾(충청북도 유형문화재 110호)를

인근지역의 채석장에서 석재를 채석하여 우마차로 교회까지 반입하였다.(이창수, 회상록, 계명사, 1998, 46쪽 참조)
 20) 이 때에 미리 구입해둔 석재들은 이 벽돌 예배당의 기초부 벽체에 약 1.2m 높이까지 사용되었고 그 상부에는 붉은 벽돌을 사용하였다.
 21) 이 교회는 미국 콜로니얼 양식으로서 당시 담임하고 있던 구연직 목사나 청주선교부 선교사들의 관여 하에 지어진 것으로 설계자는 서울에 지면있는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도면을 작성하였고 도청 건축담당 나까무라 목수가 감리하였으며 한국인 김씨형제가 도급받아 시공하였다.(이창수, 회상록, 계명사 1998, 64-68쪽 참조)
 22) 이 망선루에 대해서는 김경표, 청주망선루 현황조사 보고서, 청주시 1998 에서 자세히 고찰되어있다.

교회 내로 이축하고 학교로 개조하여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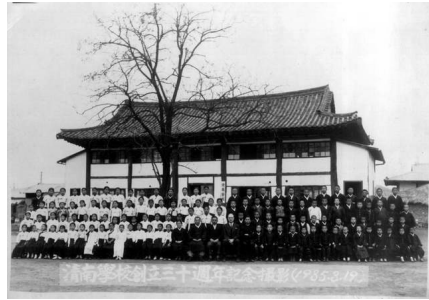


사진 7. 망선루를 개축한 청남학교(1923년)

이 망선루는 과거 일제의 청주경찰서 자리에 무더진 신축과정에서 헐려진 것을 청주읍교회 김태희 등이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보전운동을 벌여 모금을 통해 2천원에 매입하여 청주읍교회로 이전한 것이다. 이 건물을 복원하기 위해 1천 700만원이 더 필요했다. 이 돈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하던 중 700만원은 선교부에서 부담하고 500만원은 모금으로 충당하며 나머지 500만원은 청주읍교회 함태영 목사가 서울에서 모금해 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건물을 이전할 때 재목의 운반은 마차를 연결시키고 소 두마리가 끌도록 하였는데 수일이 걸렸다.²³⁾ 이 복원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도목수인 덕촌교회 임호연과 그를 도와 일한 경상도인 최목수이고 한국인 인부들과 청남학교 학생들이 노동을 제공하였다.²⁴⁾

청주 선교부에서는 성경학교 건물이 필요하여 초기에 800달러를 기부한 매클링 기념 성경학교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선교사주택으로 개조되었다. 1921년 청주성경학교가 청주읍교회 내에 설립되고 청주읍 교회를 빌려 이용하다가 영동지역 선교중 장티푸스로 사망한 부레선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의 부레선 가의 친구들과 선교부에서 보낸 현금 그리고 미국 전국

23) 박종연의 증언(1998년 1월 14일); 전순동 최동준, 앞의 글, 106쪽에서 재인용
 24) 이창수, 회상록, 1998, 20쪽; 전순동 최동준, 앞의 글, 108쪽에서 재인용과 참조함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헌금을 모아 1932년 부레선기념 성경학교(충북유형문화재 제 133-2호)가 착공되어 1933년 준공되었다.²⁵⁾



사진 8. 부레선기념성경학교(1932-1933년)

3.4 병원의 건축과정

1907년 의료선교사 넬은 선교부 내의 작은 건물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약국 겸 진료소를 열었다. 3개월 후 넬의사가 귀국하자 1908년 청주에 온 부반서 의사는 민노아의 하인 방을 인계받아 자신의 주택으로 개조하면서²⁶⁾ 동시에 약국과 진료소로도 사용하였다.²⁷⁾ 서양식 의료시설의 건물이 필요하게 된 부반서 의사는 1908년

25)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52쪽 참조
 26) 이 개조과정을 기록한 부반서(Purviance)의사 부부의 글을 보면, “우리가 청주에 와서 작은 흙집에 이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는 시작되었다. 돛자리와 양탄자를 깔고 가구를 들여놓고는 겨울을 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춥고 바람부는 첫날을 지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난로의 연통으로 계속 내려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숨을 쉴 수 있을 지경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돛자리와 양탄자가 살아나서 사나운 바다의 파도처럼 마루바닥 위에서 들쭉들쭉 하는 것이었다. 갈라진 모든 틈에서 바람소리가 웅웅거렸다. ... <중략>... 그래서 양탄자를 치우고 밀가루 풀을 쑤어서 마루바닥의 틈에 종이를 발랐다.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의 갓과 난로 연통을 따로 연결하고 벽의 갈라진 틈과 창틀 주위에 한지를 붙였다....<후략>...”(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93-94쪽 참조)
 27) 이 집도 역시 민노아 선교사가 1905년 건축한 한옥의 기와집 2채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병원이라는 같은 기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넬(Null)의사가 사용했던 건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던컨 여사로부터 5000불의 헌금을 받아 던컨 기념 병원(충북유형문화재 제 133-6호)을 건축하였다.



사진 9. 던컨 기념병원(1910-1911년)

1910-1911년 건축하고 약국은 열었으나 진료실은 1912년 던컨 여사의 추가적인 2000불의 헌금에 의해서야 비로소 개업할 수 있었다. 기존 기와집 진료소는 입원실로 이용되었다. 선교부 언덕에 위치한 병원은 가파른 오르막길이므로 환자들의 접근이 어려워 보다 편리한 시내에 진료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1917년 청주읍 교회내에 1,500불의 건축비용으로 진료소(현 남문로 1가 156-2 자리)를 착공하여 1917년 12월에 준공하였다.²⁸⁾

이렇게 시내진료소인 청주소민병원(청주 Severance Hospital)이 건축된 후엔 선교부 내에 있는 던컨 기념병원은 20병상을 갖는 입원실로 사용되었다.²⁹⁾ 해방후 한국인에 임대하거나 세광학원교무실로 이용하다 1979년에 철거되었다.

28) 이 시내 진료소 건물은 해방 후에 한국인 의사 한재호에게 3년간 임대하였다.(한국기독교장로회, 위의 책, 64쪽 참조) 이후 1949년 봄부터는 세광중학교 임시 교장실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는 현재 일신여고에 있는 포사이드 기념관과 흡사하다. (청주제일교회 장로이며 전 세광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한 최동준 장로 증언) 이후 기장과 예장이 분열되자 이 건물은 예장의 미국 선교부 충북광화원의 소유가 되어 1979년 철거되고 새로운 현대식 3층 건물이 건축되어 충북광화원의 수익사업에 일조하고 있다. 이 건물의 철거에 대한 아쉬운 기사가 충청일보 1978년 7월 30일자 민태원 기자에 의해 토로된 바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북노회, 앞의 책, 73-74쪽 참조)
 29) 미국장로교선교부 연례보고(1921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8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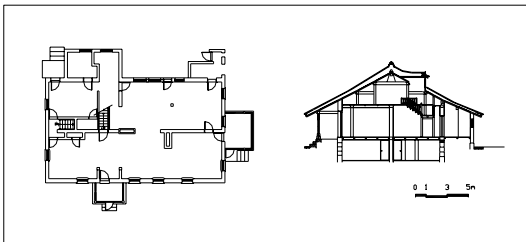
사진 10. 소민병원 시내진료소 원경 (1917년)

4. 美國 北長老會 淸州宣敎部建築의 特性

4.1. 주거건축의 특성

1904년 선교사 객관은 방 6개의 초가집으로 청주선교부가 설치되기 전 선교의 전초기지로 구입하여 임시숙소, 서점으로 사용하였다. 이 객관의 위치는 청주읍성 남문과 청주 5일 장터 사이에 위치한다.

1905년 두 번째 주택은 방 5개인 기와집 2채이었다. 이 집은 선교부 내에 있었으나 현재 그 위치는 알 수 없고 일신여고교사를 신축 당시 철거되었다.³⁰⁾ 이 집은 탑동 언덕 위에 건축하여 기존 시가지와는 구분된 독립근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도판 1. 포사이드 기념주택 1층평면도 및 단면도

1906년 포사이드 기념주택은 동산의 가장 정부에 있어 도심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좌향은 주현관을 서쪽에 놓아 시내에서 접근하는 방향에 맞추어져 있다. 평면형식은 홀+복도형이고 단변과 장변비가 약 1:2이며 비대칭형이다. 1

30) 안재명 증언(원세용, 위의 책, 48쪽 재인용)

층이 주사용공간이며 지하층과 다락방을 갖는다. 지하층은 구획된 방 2개, 난방용 보일러실과 창고, 화장실이 있으며, 1층은 포치형의 돌출된 주현관과 부현관이 있고 현관홀, 계단실, 부엌과 식당, 화장실, 응접실, 거실과 2개의 방이 있으며 다락층에는 계단으로 통하는 큰 홀, 큰방 1개, 작은방, 화장실이 있다. 건축양식은 사용자이면서 계획과 감독을 한 민노아의 의도가 반영된 미국식과 재료와 환경 그리고 기술자의 의도가 반영된 한국식이 절충된 한양절충식으로 보인다.



사진 11. 포사이드 기념주택 밑숯음평아치 지하실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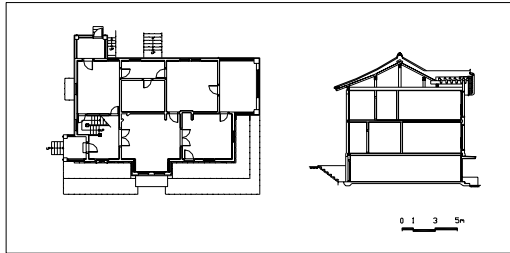
사진 12. 포사이드 기념주택 후면부 모습과 지붕의 도머창

창호는 벽돌 밑숯음평아치 인방과 화강석 통재의 창대를 갖고 격자형 오르내리창으로 1,000×2,000mm크기이며, 지하층과 다락 창은 여닫이창을 내었으며 다락엔 도머창을 두 개 내었다. 내부 각 실의 출입문은 양판문의 여닫이문을 사용하였고 크기는 850×1,850mm이다. 재료 및 구조는 적갈색벽돌(219×105×51mm)과 목기둥(230×230mm)으로 주요구조를 해결하였고 7량식 가구의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로 덮었다. 건물 하부 지하층은 300mm 정육면체형의 화강석을 쌓았고 주요 벽은 400mm두께의 조적석이나 다락의 내벽은 심벽구조이다. 설비는 난방설비로 스팀난방이고 굴뚝이 지붕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위생설비는 수세식 실내 화장실을 각층마다 1개씩 설치하였고, 주방엔 수도가 있었다.³¹⁾

1910-1911년 건축한 매클렐 기념주택(충북유형문화재 제 133-5호)은 포사이드 기념주택 남서쪽 20m 아래에 있다. 건물의 현관은 북서쪽

31) 김태영, 근대도시주택 실측조사보고서(청주읍),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연구소, 1992, 70-71쪽; 원세용, 위의 책, 61-81쪽 참조

모서리에 있지만 지하층의 출입은 서쪽에 있어 포사이드 기념주택과 같은 이유로 배치한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적갈색 벽돌조이고 지붕은 5량식 맞배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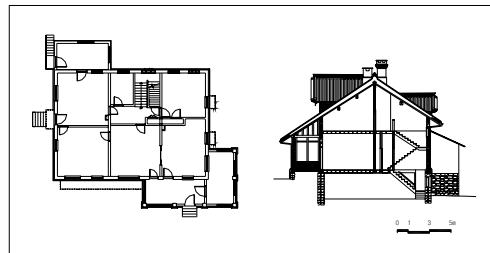
도판 2. 매클렝 기념주택 1층평면도 및 단면도

지하층을 갖는 2층집이다. 지하층 중앙에 돌출된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 넓게 개방된 홀과 방, 창고, 계단실이 있고, 1층은 포치형 현관을 들어오면 홀과 계단실, 응접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거실과 방 1개와 전실이 있으며, 2층은 내부계단을 올라오면 홀과 큰 거실, 방 3개와 창고형 수납공간, 화장실 등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평면형식은 홀+복도형이고 단변과 장변비가 1:1.8 정도의 장방형으로 서쪽 돌출부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건축양식은 미국식의 내부공간구성과 한국식의 지붕구조에 한식기와를 사용한 한양절충식이다. 창호는 포사이드 기념주택과 같은 오르내리창으로 창인방은 결원아치이고 창대는 화강석 통재이며 지하실 창은 밀어내기 창이다. 각 실 문은 양판문이고 거실, 홀, 응접실 등의 문은 환기창을 문상부에 따로 내었다. 지하실 외벽은 화강석 바른층쌓기이고 내벽은 3B쌓기, 1층의 외벽과 내벽은 모두 2B쌓기, 3층의 외벽은 2B쌓기와 내벽은 1B쌓기를 하였다. 지붕구조는 5량식 맞배지붕이다. 설비는 벽난로식 난방이다.³²⁾

같은 시기에 지은 민노아 주택(충북유형문화재 제 133-3호)은 포사이드 기념주택에서 동쪽으로 15m 정도 떨어진 경사지에 위치하고 북쪽 포치형 현관을 통해 진입하며 좌향은 남향이다.

32) 김태영, 위의 책, 72-73쪽 참조

북쪽면에서 보면 1층으로 보이거나 남쪽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인다. 주요구조부는 적갈색 벽돌의 조적으로 지하층은 화강석 바른층 쌓기이고 내벽은 3B이다. 1층은 내외벽 모두 2B쌓기이고 2층 외벽은 2B쌓기이고 내벽은 1B쌓기이다. 14자의 일정한 모듈을 갖고 단변 2칸 장변 3칸을 구획했다. 지붕은 7량식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었다.



도판 3. 민노아 주택의 1층평면도 및 단면도

평면형식은 단변과 장변비가 1:1.5인 장방형이다. 포치형의 현관을 들어오면 홀형 거실과 응접실로 이어지고 이 홀형 거실에서 사무용 방과 부엌과 주방, 그리고 1개의 방이 독립되어 있고 부엌 옆에는 화장실이 있다. 복도와 계단실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은 계단실을 통해 올라가면 속복도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3개의 방과 1개의 거실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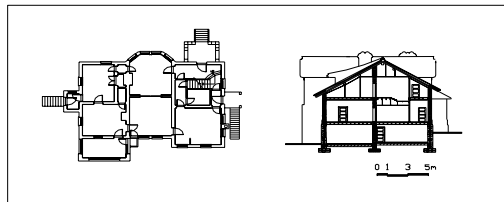


사진 13. 민노아 주택 1층 창문 형태

각 방에는 독립된 수납공간을 갖고 있으며 2층 화장실은 1개이다. 지하층은 계단실을 통해 내부로 연결되며 남쪽 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2개의 문이 있다. 용도는 보일러실과 2개의 방과 창고가 있다. 기본적으로 창문은 매클

령 기념주택이나 던킨 기념 병원과 같은 결원형 아치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지붕층에 마름모꼴 채광창이 더 있고 남쪽 부에 작은 박공형의 지붕을 3개 만들고 여단이상을 달았다. 각 실의 출입문은 매클링 기념주택과 같다. 설비는 벽난로를 2개 놓아 난방했다.³³⁾

선교부 건축 중 가장 동쪽 언덕 꼭대기에 소열도 주택(충북유형문화재 제 133-1호)이 있다. 이 주택의 접근은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진입공간에 전정과 건물 남쪽에 후정을 갖고 있다. 주택 4면에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좌향은 동남향이다. 지하층을 갖는 2층으로 1층은 현관 홀에서 2층으로 직접 통하게 되어있는 홀형이고 2층은 각 실이 속복도로 연결된다. 1층은 중앙 응접실을 중심으로 2개의 침실과 주방이 있고 화장실은 현관 홀에서 문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2층은 1개의 응접실과 3개의 침실, 주방, 다락형 수납공간이 있다. 박공지붕이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있지만 동남방향의 7량식 지붕이 이 주택의 전체모습의 중심을 잡고 있다. 창문은 다른 선교사 주택과 같은 격자형 오르내리창이면서 결원아치의 인방쌓기를 하였다. 응접실의 3면 베이윈도우와 현관의 쌍주는 다른 선교사주택에선 보이지 않는 독특한 의장요소다. 구조는 붉은벽돌조의 서양식 주택모습으로 주요구조부는 2B쌓기이고 내부 간막이 벽은 1B쌓기로 되어있다. 벽체 하단부는 화강석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실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은 다른 선교사 주택과 같다. 난방은 1층 응접실 부분과 2층의 침실 부분에 연속하여 2개의 벽난로가 있으며 1층과 2층 주방의 외벽에 굴뚝이 있다.³⁴⁾



도판 4. 소열도 주택 1층평면도 및 단면도

33) 김태영, 위의 책, 76-77쪽 참조

34) 김태영, 위의 책, 78-79쪽 참조

4.2 교회건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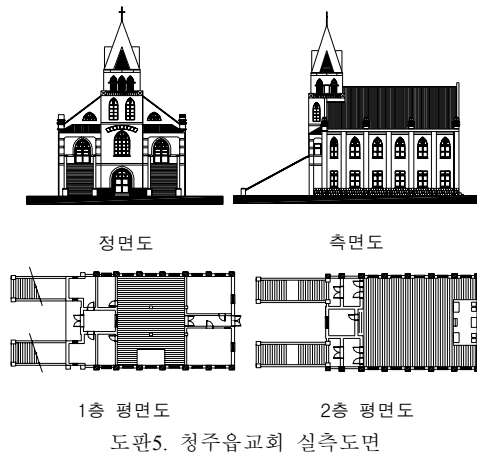
청주읍 교회는 1904년 청주 선교기지로 구입한 남문 밖의 초가집에서 시작하였다. 이 초가집은 방이 6개이었는데 이중 한 방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초가집은 1년 동안 사용되면서 세 배 정도 증축되었다.³⁵⁾ 1905년 인근 청주영장관사기지를 매입하고 기와집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³⁶⁾ 이 건물은 1910년 500여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1913년 새로운 교회건물이 착공되었는데 개량된 목조와 지붕틀로 구성되어 함석지붕을 얹었다. 당시 예배공간은 남녀석이 회장에 의해 엄격하게 분리되었고 출입문도 박공면 좌우 2개로 구분하였다. 이 회장은 1920년에 철거되었다. 또한 주일학교 운영은 남자와 여자를 시간대에 따라 구분하였다.³⁷⁾ 1939년의 벽돌 예배당은 전형적

35) 이러한 초가집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 되었는데 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접적인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서울의 연동교회의 초가집 예배당 확장기록을 보면 “...예배처소가 좁아 附櫓을 달아 확장하기를 거듭했다. 그래도 급증하는 교인을 수용할 수가 없어 선교부 구내 정원에 천막을 치고 주일 낮 예배는 천막에서 주일과 수요일 밤 예배는 초가 예배당에서 드렸다. 천막은 배오개 시장의<중략>포목상에서 광목을 제공해 주어 그 이음새에 黃粟을 넣고 노끈으로 매어 연폭한 것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 청주읍교회는 당시 연동교회에서 일하던 민노아 목사가 설립한 것이므로 연동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장했을 것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교회 100년사, 금영문화사 1995, 112쪽 참조)

36) 이 두 번째 예배당은 방홍근의 주택 겸 청남학교의 교실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인 것 같다. 원래 보부상 소유의 건물이었으나 1905년 초가집 교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904년 전에 구입해 두었던 기와집으로 옮기는데, 청남학교와 관계하고 있던 민노아는 쉽게 청남학교 교사들과 합의할 수가 있었고 소유주 자신인 민노아의 의견에 의해 청주읍교회 예배당으로 개조한 것 같다. 1908년 청남학교는 아예 민노아가 인수하여 영장관사기지 내에 있었던 樓閣 하나를 4개의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누각을 교실로 변형한 것은 1909년 에드윈 개건의 편지에 ‘높은 건물’이라든지 미국장로교 한국선교사 청주편의 글에 나타난 “나중에 교실로 개조된 한 누각이 있었는데”라는 구절에서 추정할 것이다.

37) 미국 장로교선교부 연례보고(1916년)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80쪽 참조)

인 미국 콜로니얼 양식이며 정면을 강조한 유형으로 좌향은 남정면북제단식이다. 정면 중앙 1탑식이고 중심축을 강조한 것으로 포인트드 아치를 주요한 의장요소로 채택하였다. 탑은 전체 건물 매스에 비해 낮다. 진입방식은 1층으로는 정면 중앙현관으로 진입하고 2층 예배실로는 정면 양측에 직선형 외부계단을 올라 각각 독립된 현관포치를 거치게 된다. 후면 중앙 1층에도 부출입구가 있다. 1층엔 다목적실, 주일학교 교실 2개와 전면 계단하부에 창고 2개가 있고 2층엔 예배실과 정면 탑부에 준비실이 있다.



예배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단변이 14.5m이고 장변이 21.0m이므로 약 1:1.5의 비례이다. 구조 및 재료는 하부엔 화강석으로 1.2m까지 줄기초처럼 쌓았고 그 위에 붉은 벽돌조로 쌓았으며 3.5m간격으로 기둥식의 부축벽이 있고 지붕가구는 쌍대공 지붕틀 위에 송판을 대고 그 위에 합석판을 얹었다. 1층 창은 붉은 벽돌 평아치 인방에 붉은 벽돌 창대를 갖고 격자형 창살의 사각 2중창의 미단이식이다. 2층 창은 1층과 같은 창대와 뽕족아치의 미단이식이다. 바닥엔 마루를 깔았고 벽은 회바름이며 천장은 합판으로 만든 우물 평천장이었다. 난방방식은 각실에서 난로를 피우고 양측벽의 부축벽에 설치된 굴뚝을 통해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비하였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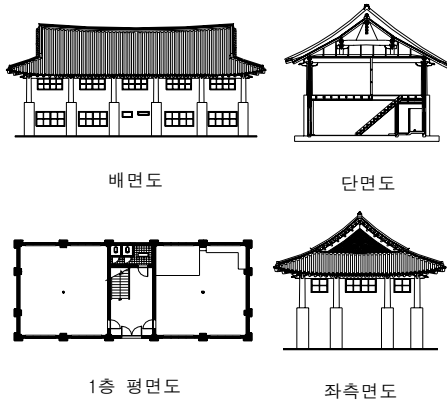
4.3 학교건축의 특성

1904년 청남학교는 방흥근의 개인집에서 2개의 교실로 시작하였다. 이 건물은 일반주택으로 보이고 마루바닥에서 수업한 것으로 보인다. 조명관계는 격자문살이 있는 창호지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다.³⁹⁾ 1908년 보부상 조합으로부터 60평 정도의 방 4개가 있는 건물 한 채를 매입하였다. 이 집은 흙벽이며 천장이 높았고 유리창문을 달았다. 이것을 교실 4개로 개조하고 벽은 백회를 발랐다.⁴⁰⁾ 1923년 망선루를 개조한 청남학교 건물은 1938년까지 사용하였다. 이 망선루는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2층 누마루형 목조 팔작지붕의 누각건물이었다. 이것을 이전하여 학교 건물로 개조하는데 1층과 2층을 하나의 기둥으로 구축된 통재 기둥사이에 벽을 쌓아 막고 매 칸마다 유리창문을 달아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화 하였다. 남측 1층 어간에 출입구를 내고 중앙 홀을 통해 양옆에 구성된 교실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맨 우측 칸에 있던 목계계단은 중앙으로 옮겨 2층으로 통할 수 있게 하였다. 남측 2층 창은 누각의 개방성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교실로서의 빛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벽면 전체를 띠창으로 만들었고 북측 벽에도 비교적 큰 창을 달았다.

당시 사진에는 동서 양측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을 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 구성은 1층 어간은 1.0B 벽돌로 양 측면을 막아 홀형의 교무실로 사용하였고 좌우에 2칸씩을 통간으로 하여 교실 2개를 만들었으며 2층 중앙 어간은 미장합판으로 막아 준비실(또는

38) 도선봉, 청주지역의 교회건축의 변천과정, 충북대 석사논문 1991, 73-74쪽 참조
 39) The Korean Mission Fields에 있는 Edwin Kagin의 글에 따르면 “약 5년 전에 교회 옆에 한 오래된 건물에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벽은 금이 가고 마루바닥에 구멍이 나고 지붕도 새는 낡은 건물이었다. 하나뿐인 조명도 한지바른 격자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고 하였다.
 40) 이러한 내용은 건물이 남아있지않으므로 자세한 알 수 없지만 에드윈 케긴의 글(The Korean Mission Fields)과 미국 장로교한국선교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위의 책 53쪽 참조)의 사실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작은 교실)과 역시 좌우 2칸을 통칸으로 하여 마루 교실 2개를 만들어 사용하였다.⁴¹⁾ 이 유형은 한식 건물에 서양식 학교기능을 수용한 것으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일반적인 건축방식이었다.



도판 6. 망선루 개축 청남학교의 실측도면

1910년 매클링의 기부금으로 지은 성경학교 건물이 선교사들의 주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성경학교 건물이 긴급히 필요하던 차에 부레선 선교사를 기념하는 부레선 기념성경학교(충북유형문화재 제 133-2호)가 1932년 착공하여 1933년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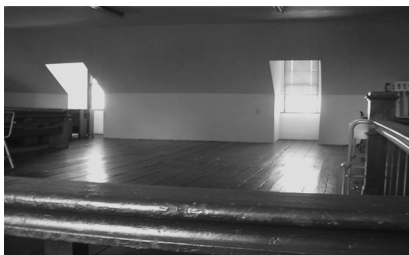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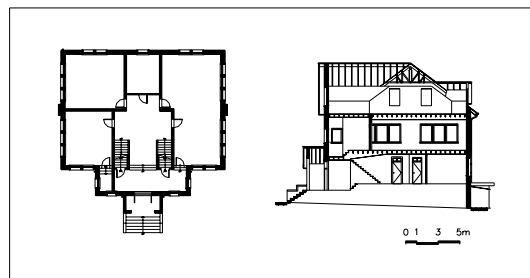


사진 14. 부레선 기념성경학교 3층 내부모습과 도머형 채광창

이 건물은 반지하를 갖는 3층 건물로 주진

41) 이렇게 복원 이축하여 청남학교로 사용하던 것을 1963년 청주제일교회가 교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면 보수하였고 1999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철거되었고 현재 청주 중앙공원에 복원되었다.

입이 서쪽이며 좌향은 서향이다. 단변과 장변비가 1:1.4의 단순 장방형 평면에 돌출되어 부가된 중앙 홀과 계단실을 갖고 각 실로 유도된다. 지하층은 주거로 쓰고 속보도에 접속된 6개의 침실, 다용도실, 주방, 창고,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돌출된 현관포치와 중앙 홀,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강의실로 구성되었고, 2층은 하나의 큰 강당형 교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은 다락형으로 강의실과 도서실로 사용되고 있다. 2층 대강당형 교실은 집회공간으로도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다. 돌출된 포치형 현관과 박공형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외관을 갖고 있고 현관은 적갈색 벽돌로 반원형 아치쌍기를 하여 건물전체의 중심을 더욱 강조하였다. 박공형 건물에 당시는 시멘트슬레이트였으나 현재는 함석지붕을 얹었고 동쪽 배면부 지붕엔 3개의 도머창이 나있어 3층을 채광한다. 창문은 모두 격자형 창살을 갖는 직사각형의 오르내리창이고 창인방은 평아치쌍기를 하였으며 창대는 화강석 통재이다. 구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적갈색 벽돌의 조적조이다. 지붕은 함석이며 내부 천장은 쭈대위에 회바름이고 벽은 회벽 마감이며 바닥은 지하층을 제외한 1층, 2층, 3층을 모두 쪽마루로 깔았다. 정면에서 보아 좌우 양측의 박공벽 중심에 부축벽 역할을 하는 굴뚝이 설치되어 구조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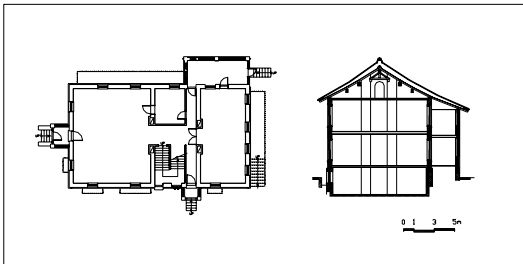


도판 7. 부레선 기념성경학교 1층평면도 및 단면도

42) 김태영, 위의 책, 80-81쪽 참조, 이 책에서는 1988년 발간한 대한건축학회 미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Ⅱ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문이 결원형아치로 그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평아치이다.

4.4 병원건축의 특성

1907년 의사 널이 선교부 내의 작은 건물에서 약국과 진료소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1908년 부반서 의사가 청주선교부 의료선교사로 정착하면서 민노아의 기와집을 개조하여 약국과 진료소를 열었다. 이 건물은 던컨 기념병원 준공 후 입원실로 사용되었다. 1910년 착공하고 1911년 준공한 던컨 기념병원은 지하층을 갖는 2층 규모에 단변과 장변비 약 1:1.8정도인 장방형 평면이다. 좌향은 남향이지만 주진입은 동측 면, 부진입은 북측 면에서 이루어지고 계단홀과 T자형의 속복도에 의해 각 실이 연결된다.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지하층, 1층, 2층이 모두 큰 개방형 실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1:2 비례의 장방형 실이며 계단실과 마주하여 각 층마다 작은 부속실이 있고 남쪽면 1층과 2층엔 발코니가 있다.



도판 8. 던컨 기념병원 1층평면도 및 단면도

동서로 긴 맞배지붕에 계단실면 박공형 지붕이 건물의 대칭적 균형을 잡는다. 창문은 장방형 오르내리창에 회색 벽돌로 결원형 아치 인방쌓기를 하고 창대는 화강석 통재를 사용하여 매클링 기념주택이나 민노아 주택과 같은 형식이다. 기초부는 화강석 쌓기를 한 위에 전체적으로 적갈색 벽돌조이며 9m의 장스판을 중앙 홀의 네모서리에 4개의 굴뚝으로 구조적 축을 잡고 현관의 기둥이 부속벽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1층 천장은 쥘대 위에 회바름 하였고 2층은 노출된 연등천장이며 벽은 회벽바름, 바닥은 쪽마루 깔기를 하였다. 지붕은 7량식 가구의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었다. 설비는 4개

의 굴뚝에 의해 유도된 난방설비와 급수설비가 도입되었다.⁴³⁾



사진 15. 던컨 기념병원 현관모습



사진 16. 던컨 기념병원 창문모습

1916년 계획되어 1917년에 준공된 시내진료소는 청주읍 교회 구내 서쪽(현 남문로 1가 156-2)에 있었고 환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 부근에 위치하였다. 주출입구는 남문로에 면하는 박공부에 설치되었고 부출입구는 청주읍교회와 연결되었으며 동성방향으로 길게 앉아 있었다. 선교부 구내에 있는 포사이드 기념주택과 유사한 형태이나 박공면이 뚜렷한 것으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반지하층을 갖는 1층 건물로 붉은 벽돌조의 기와집이었다.⁴⁴⁾

5. 結論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 건축을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현존건물들은 실측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과정으로

1) 주거건축은 초가집을 구입하여 선교사 객관으로 사용하거나 선교부내에 기와집 2채를 건축하는 한옥식을 채택하여 출발하여 1906년 포

43)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위의 책, 54쪽에 있는 미국장로교한국선교사의 청주 편을 참조하면, 1911년 1월 병원건물이 준공되어 약국은 입주하였으나 진료실과 입원실의 설비가 구비되지 않아 병원개업을 하지못하던 차에 던컨씨의 추가적인 2000달러를 기부하여 비품, 우물, 급수설비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하여서 1912년 7월부터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44) 세광중고등학교에서 은퇴한 최동준 교장의 증언, 2000년 10월 18일, 2001년 2월 21일

사이드 기념주택으로 청주 최초의 서양식주택이 건축된 이후 연속적으로 건축한 3채의 주택에서 외피는 한옥형태를 갖으면서 내부는 서양식 기능을 수용하도록 건축하였다. 주택을 건축한 선교사들은 주택이 단순히 주거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도 역사적인 상징의미를 갖고자 했다. 비전문건축가인 선교사가 계획과 감독을 하였고, 벽돌과 기와의 제조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창호부재나 내장재 등은 미국에서 수입하였다. 노동은 한국인이 담당했고 인건비 지급이 있었다.

2) 교회건축은 초기엔 기존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교회건축을 계획하여 지을 때엔 개량 목조 함석지붕의 예배당이 신축되면서 서양의 예배의식을 수용하도록 변하면서 1930년대는 미국 콜로니얼 양식의 벽돌조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선교거점교회로서의 청주읍교회는 선교부의 1/3의 건축 지원금과 교회 신자들의 헌금 2/3을 합하여 건축하였다. 교회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인 신자가 주체가 되고 미국선교사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건축하였다.

3) 학교건축으로 청남학교는 개인집, 청주 진영터 기와집, 망선루 등 모두 기존 건물을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청주성경학교는 부레선 기념성경학교와 같이 미국 선교부의 지원으로 미국식 소규모 학교건물과 유사한 형태로 건축하였다.

4) 병원건축은 선교부내의 기와집 한옥에서 임시진료소로 사용하다 던컨 기념병원이나 시내 진료소처럼 미국 선교부의 지원으로 역시 한옥의 회피를 입은 미국식 소규모병원을 건축하였다.

다음은 건축 특성으로

1) 주거로서 초가집 임시주택은 방이 6개 있었고, 기존 주거지 내 청주읍성과 장터 사이에 위치하였다. 끝이여 탑동 언덕 위에 독립된 주거지를 확보하고 방이 5개씩 있는 기와집을 2채와 포사이드 기념주택, 민노아 주택, 매클링 기념주택, 소열도 주택 등을 건축하였다. 기초부는 화강석으로 벽은 적갈색 벽돌로 쌓고 팔각지붕

이나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없은 한양절충식으로 지하와 다락방을 갖으며 대부분 2층 규모로 건축하여 수직적인 공간확장을 가져왔다. 창호는 밑숯음 평아치나 결원아치의 인방을 틀어짜고 화강석이나 벽돌 창대를 갖는다. 지붕가구는 5량식이나 7량식이 사용되었다. 특히 소열도 주택은 베이윈도우와 개방형 포치가 특징으로 다른 주택에 비해 외관상 보다 미국 식민지양식에 가깝다.

2) 청주선교부 거점교회인 청주읍교회는 초기의 선교사 객관이나 기존의 기와집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1913년 개량형 목조 함석지붕 예배당은 당시 지역 최대규모의 교회건축으로 개량된 목구조에 회벽의 단순 홀형이었다. 1939년 벽돌조 예배당은 1930년대에 한국교회건축에서 유행하던 도시형 교회 형식을 잘 드러내며 중앙 1탑식으로 정면성과 대칭성이 강조되었다. 도심지 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남정면 북제단의 형식이며 전형적인 미국 식민지양식이다.

3) 학교건축으로 청남학교는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인 기와집을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교실채광으로 유리창을 크게 달아 해결하였다. 청주성경학교는 1932년 부레선 기념성경학교를 건축하여 전형적인 미국식 소규모 적갈색 벽돌조의 학교건물이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수직적 공간확장이 적극화되었고 지붕에 도머창을 내었으며 정면 현관의 반원아치의 부가적인 현관 포오치와 계단 홀이 특징이다.

4) 병원건축은 설립 초기엔 기와집 2채를 의사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방 한 칸을 진료실과 약국으로 개조하였다. 던컨 기념병원의 외관은 민노아 주택이나 매클링 기념주택과 유사하다. 내부 공간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속복도에 연결된 진료실과 보조실들의 구성이 지하층, 1층, 2층이 동일하다. 1917년 시내 진료소는 지하층이 있는 1층 규모로 이전의 청주선교부 주택이나 병원보다도 훨씬 더 서양식의 박공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상의 연구는 문헌자료와 현장실측조사를 통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에 보다 정밀한 건

표1. 미국 북장로회 청주선교부 관련 건축물

번호	기능별 분류	건물명 (건축년도)	양식	건축특성
01	주거	선교사 객관(1901)	한옥식	초가집, 방 6칸, 서점+숙소+교회, 기존주거지에 한국인과 혼합 거주(청주읍성 청남문 앞에 위치)
02		민노아 임시주택(1905)	한옥식	기와집 2채, 각각 방 5칸, 독립 거주지 확보(탑동 동산 언덕 위)
03		포사이드기념주택(1906)*	한양 절충식	적갈색 벽돌+목조, 화강석기초, 한식기와 팔작지붕, 반지하층+1층+다락층, 밑숯음평아치창+화강석창대, 독립 거주(탑동 언덕위)
04		민노아 주택(1911)*	한양 절충식	적갈색 벽돌, 화강석기초, 한식기와 맞배지붕, 반지하층+1층+2층, 결원형 아치창+화강석 창대, 독립 거주(탑동 언덕위)
05		매클링 기념주택(1911)*	한양 절충식	적갈색 벽돌, 화강석기초, 한식기와 맞배지붕, 반지하층+1층+2층, 결원형 아치창+화강석 창대, 독립 거주(탑동 언덕위)
06		소열도 주택(1921.?)*	양옥식	붉은 벽돌, 화강석기초, 한식기와 박공지붕, 반지하층+1층+2층, 결원형 아치창+붉은벽돌 창대, 독립 거주(탑동 언덕위)
07	교회	청주읍 교회(1904)	한옥식	초가집, 방 6칸, 예배실+서점+주거(선교사, 직원)
08		청주읍 교회(1906)	한옥식	기와집, 100명 수용가능, 청주 진영터의 기존건물구입개조, 1910년 500명 수용가능한 규모로 확장
09		청주읍 교회(1913)	양옥식	개량 목조 합석지붕, 500명 수용가능, 측면 6칸, 정면 남너출입구 분리 설치, 결원형 채슬아치의 제단, 청주 진영터, 난로설치
10		청주읍 교회(1939)*	양옥식, 미국 식민지 양식	붉은 벽돌+목조 쌍대공 지붕틀, 화강석기초, 2층, 중앙 1탑식, 뽕죽 아치 창, 마루바닥, 1930년대 전형적인 한국의 도시형 교회, 남정면 북제단의 좌향, 도심지 시장근처에 위치, 1949-1951년 증축하여 현존
11	학교	청남학교(1904)	한옥식	와가, 교실 2개, 마루방 교실, 창호지 창
12		청남학교(1908)	한옥식	와가, 교실 4개, 흙벽, 유리창문, 60여평
13		청남학교(1923)	한옥식	와가, 2층, 정면5칸×측면3칸, 교실 4개+보조실 2개, 유리창문, 양측면 계단실+중앙계단실, (망선루)
14		부례선 기념성경학교(1932)*	양옥식	적갈색 벽돌, 콘크리트 기초, 합석 박공지붕, 반지하+1층+2층+다락층, 평아치창+화강석 창대, 흙형
15	병원	임시 진료소(1907)		약국+진료실, 의사 널이 개조
16		임시 진료소(1908)		약국+진료실, 커튼 사용, 의사 퍼비언스가 개조
17		던컨 기념병원(1911)*	한양 절충식	적갈색 벽돌, 화강석기초, 한식기와 맞배지붕, 반지하+1층+2층, 결원형 아치창, 속복도형, 약국+진료실+수술실
18		청주 소민병원(1917)	한양 절충식	적갈색 벽돌, 한식기와 박공지붕, 반지하+1층, 시내 청주읍 교회내 서편 156-2 대지에 위치, 1979철거

* 이 건물들은 현존하는 것으로 정밀한 실측조사가 수행되었다.

축요소별 분석이 요구되고 추가적인 사진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 선교부건축물들과 비교하여 한국근대건축의 전체 틀 속에 놓고 조명해야할 과제를 남긴다.

참고문헌

1. 김경표, 청주 망선루 현황조사 보고서, 청주시, 1998
2. 김태영, 근대도시주택(청주읍),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연구실, 1992
3. 김태영, 일제강점기 지방도시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
4. 大熊春峰(정삼철 번역), 청주연혁지, 청주시, 1923
5. 대한건축학회, 미지정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보고서 1, 을지문화사, 1987
6. 대한건축학회, 미지정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보고서

- 서 2, 을지문화사, 1988
7. 도선봉, 청주지역의 교회건축의 변천과정,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1
 8. 도선봉 한규영, 미국 북장로회 안동선교부 건축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호, 2000
 9. 발언편집부, 우리건축을 찾아서2, 도서출판 발언, 1993
 10. 안재명, 충청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주성사 진문화인쇄, 1999
 11. 연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연동교회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연동교회, 1995.
 12. 원세용, 청주양관 1호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1993
 13. 윤일주, 한국 양식건축 80년사, 야정문화사, 1965
 14. 윤일주, 한국근대건축사연구(1910년이전의 부산의 양풍건축), 성균관대학교건축공학과동창회, 1987
 15. 이덕주, 한국기독교문화유적을 찾아서-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1), 기독교사상, 1997.9
 16. 이창수, 회상록, 계명사, 1998
 17. 전순동 최동준,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중원문화연구소, 1999
 18. 청주시지편찬위원회, 청주시지, 청주시, 1976
 19. 청주시편찬위원회, 청주지, 청주시, 1961
 20. 청주제일교회, 연도별 청주제일교회 발자취, 한국기독교장로회 청주제일교회, 1984
 21. 충북노회역사편찬위원회, 충북노회 8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북노회, 1979
 22. 충북노회역사편찬위원회, 충북노회사료집,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1998
 23. 충북대학교건설기술연구소, 청주 도시계획변천사(도집), 청주시, 1994
 24. Leland M. Roth, A Concise History of American Architecture, Harper & Row, Publishers, Inc., 1979
 25. Marilyn W. Klein & David P. Fogle, Clues to American Architecture, Starrhill press(Washington D.C.), 1986
 26. <http://jeil.id.ro>